

제23회
2005

부산연극제

연극사랑!
관객사랑!

2005. 4. 1(금) ~ 4. 17(일)

주최 : 부산광역시 | 주관 :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연극협회 |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 PSB | 부산방송 | BBS 부산불교방송 | CBS 부산방송 | 부산일보 | 국제신문

협찬 : 교보생명 | 주식회사 우남 | 부산은행 | MEGA MART



연극사랑!
관객사랑!

The 23rd Busan Theater Festival 2005

부산연극제

경연
작품

극연구집단 시나위

4월 11일(월) 19시 30분 ~ 12일(화) 16시 30분, 19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가 | 강태욱 연출 | 오정국

B.C 2430

[작가의 말]

"B. C 2430", 우선은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과 조언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430', 사실 정확히는 '2340' 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대서 사시를 꿈꾸면서 만든 초기작 "The tempest in Ancient cho-sun"을 모태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온 증거이기 때문이고, 작품이 공연이 될 수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고쳐 나갈 것을 뜻한다. 이는 좋게 말하면 작품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필자가 산만하다는 말이다.

고조선 이전의 사라져버린 우리 상고사. 유구하고 방대한 선조들의 잃어버린 역사를 많은 사료들을 발견하면서 가슴이 벅찼지만, 역사적 사건이나 구전되는 이야기마저도 하나 남아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필자에게도 힘든 작업이 되게 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백퍼센트 만들어진 인물이고 사건이다. 하지만, 분명 고대 상고사를 배경으로 했고, 그것을 통해 현재, 아니 미래를 비추어 볼까도 했다.

"B. C 2430"은 등장인물에 치중을 한 episode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전극들이 가지고 있는 시적표현이나 은유적 대사표현을 배제시키고, 일상의 말과 직접적인 대사들로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그려보았다. 이는 오히려 배우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 문제이지만, 평소 속내를 직접적이고 꼬집어서 말하지도 못하면서 듣는 이가 알아듣는지도 의심스러울만한 필자의 문장세계를 스스로가 대단히 우려하고 경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웃음.)

결론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도 스토리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앞으로 좀 더 밝히고 다져진 필력이 된다면, 이 작품의 또 다른 이야기, episode II 를 선보여 줄 수 있길 조심히 바래봅니다.

- 05년 3월 2일 강태욱 -

[연출의도]

이 작품은 지금까지 무대에서 다루어지거나 거론되어 본 적이 없는 고대 상고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시대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잘못 알고 있는 단군신화와 고조선사, 또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정통성의 주장도 도전받는 이 시점에 단군설화의 사건화를 목표로 시도된 창작 작업은 그 이전의 광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잃어버린 상고사를 배경으로 민족의 찾음과 동시에 과거가 현재와 함께하며 현재를 통해 다시 과거를 비추어 보고자 한다.



CAST



환신 백길성



지로 김태훈



애국동천 박상규



선갈 강태욱



을지 박철영



주련 김혜정



시르공주 박지현



미천로부인 백상희



천부장로,병사 반필우



부장,병사 서성원



야나 김현진



무리들 강경희



무리들 권수정



무리들 김지영



무리들 남미숙



무리들 문희영



무리들 안인영



무리들 연보미



무리들 유은영



무리들 이진아



무리들 정선영



무리들 정연승



무리들 정윤희



무리들 한지은

STAFF



작 강태욱



연출 오정국



드라마트루기 하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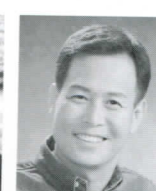
작곡 전현미



조명디자인 장영섭



무대디자인 황경호



무대감독 정순지



안무 왕정희



음향 송현실



분장 박은주



진행 손안모



의상 도광원



섭외 문성운



무술지도 홍상의